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만족지연능력간의 관계

Relations among Preschoolers' Temperament,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Ability to Delay Gratification

선우현정(Hyun-Jung Sunwoo)¹⁾

도현심(Hyun-Sim Doh)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elationships between preschoolers' temperament,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ability to delay gratification. A sample of 131 preschool children aged from 4 to 5 participated in a delay-of-gratification experiment, as reconstructed by Rodriguez and his colleagues (2005). Mothers answered questionnaires on their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temperament. Data were analyzed by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s. Children's activity as well as mothers' warmth and control predicted the ability to delay gratification;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were found between children's activity and maternal warmth on the ability to delay gratification. It would be plausible to intervene in children's activity level and improve the ability to delay gratification.

Key Words : 만족지연능력(delay of gratification), 어머니의 양육행동(mothers' parenting behaviors), 유아의 기질(preschoolers' temperament).

I. 서 론

자기조절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만족지연능력은 오래전부터 성격발달의 주요 변수로 여겨져 왔다(Baumeister & Heatherton, 1996). 만족지연 능

력이란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하여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자발적으로 지연시키고 욕구지연에 따른 좌절을 인내하는 행동으로 정의되며(Mischel, 1974), 일찍이 아동의 학업능력, 사회적인 적응능력, 문제행동 등과 연관 지어 연구되었다. 만족

¹⁾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협동과정 석사

²⁾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아동학협동과정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un-Sim Doh, Department of Psychology/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E-mail : simdoh@ewha.ac.kr

지연능력이 높은 유아는 학업적, 사회적으로 유능한 반면(Ayduk, Mendoza-Denton, Mischel, Downey, Peake, & Rodriguez, 2000; Mischel, Shoda, & Peake, 1988; Olson, 1989; Raver, Blackburn, Bancroft, & Torp, 1999), 만족지연능력이 낮은 유아는 성격특성이 부정적이고(Funder, Block, & Block, 1983), 높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였다(Olson, Schilling, & Bates, 1999). 이와 같이, 만족지연능력은 건강한 성격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의 발현을 중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관련변인을 밝히고자 하는 학문적 노력이 요구된다.

만족지연능력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주로 유아의 타고난 특성과 환경적 영향을 중심으로 그 관련성을 발견하고자 시도해 왔다. 먼저 유아의 타고난 특성인 기질적 측면에서, 유아의 정서성은 만족지연능력과 관련하여 연구된 대표적 기질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즉,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유아는 만족지연 전략을 잘 활용하여 지연 시간이 더 길었다(Raver, 1996). 또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상상한 유아와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을 상상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만족지연 실험상황에서, 전자는 보다 크고 지연된 보상을 선택하였던 반면, 후자는 보다 작고 즉각적인 보상을 선택하였다(Moore, Clyburn, & Underwood, 1976). 이와 유사하게, 연구대상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유아 집단’과 ‘즐거운 생각을 하고 있는 유아 집단’으로 분류하여 양 집단 간의 만족지연 시간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전자보다 후자가 만족을 지연한 시간이 더 길었다(Mischel, Ebbesen, & Zeiss, 1972). 정서성 외에 유아의 억제성향(inhibition)도 만족지연능력과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는 억제성향이 유아로 하여금 상황의 부가적인 측면을 고려하게 한다는 점에 근거한다(Nisan, 1974). 억제성향과

만족지연능력간의 밀접한 관계는 유혹-억제 자기지시 계획이 유아의 만족지연을 촉진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Patterson & Mischel, 1976)에서도 발견된다. 억제성향과 상반되는 특성으로 보여지는 활동성 또한 만족지연능력과 관련하여 연구된 바 있으나, 양자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Silverman & Ippolito, 1995). 이 외에도, 생후 6개월경에 까다로운 기질을 보였던 것으로 회상되었던 아동은 학령기에 충동적인 인지스타일을 보였다(Carey, Fox, & McDevitt, 1977). 충동적인 아동일수록 만족을 지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결과(Toner, Holstein, & Hetherington, 1977)에 근거할 때, 이를 통해 생후 초기의 까다로운 기질과 학령기의 만족지연능력간의 관계를 가정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에 들어서야 유아의 기질과 만족지연능력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혜순(2006)은 적응성, 활동성, 반응성, 정서성 및 생리적 규칙성 등의 기질특성이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5가지 특성들 가운데 어떤 특성도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기질 특성 가운데 정서성에 초점을 두어 3세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결과(김수혜, 2000)와도 유사하다.

이와 같이, 국내외 연구들은 기질의 여러 특성 가운데 특히 정서성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여러 기질 특성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질 특성을 포함하였더라도 그 결과가 비일관적인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성을 포함하여 적응성, 활동성, 반응성 등 기질의 여러 특성들을 포함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다음으로,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대표적 환경으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들 수 있다(Putnam, Spritz, & Stifter, 2002). 즉, 유아는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조절하고 충동을 통제하며 만족을 지연하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특히 주양육자인 어머니는 유아에게 만족지연능력을 직접적·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로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만족지연능력 발달을 위한 모델링의 대상이 되고 그 밖에 다양한 경로에 의해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 요인들 가운데 특히 온정성과 통제성은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의 관련요인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왔다(김혜순, 2006; 이미라, 1999; Houck & LeCuyer-Maus, 2004; Silverman & Ippolito, 1995). 그러나 이러한 양육행동 요인들과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간의 관계는 연구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보고된다. 먼저, 부모의 온정성과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몇몇 연구들은 양자간의 정적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 온정적 태도, 수용, 존중, 이해, 자율성과 독립성 장려 등의 온정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은 높았다(김혜순, 2006). 이와 유사하게, 어머니의 애정-자율적 태도가 높을수록 유아는 높은 만족지연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김선하, 1997). 또한 2세 때 유아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은 유아의 높은 만족지연능력을 예측하기도 하였다(Putnam et al., 2002). 이와 달리, 어머니의 지나치게 온정적인 양육은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과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도 보고된다. 그 예로, 18개월에 측정된 어머니의 긍정적 반응(feedback)과 지시적·지배적 행동은 2세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과 각각 정적인 관계와 부적인 관계가 있었으나, 각 실험 상황에서 어머니가 보인 긍정적 반응, 지시적·

지배적 행동 등을 포함한 모든 행동의 비율이 높을수록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너무 높은 비율의 어머니-자녀간 상호작용은 내용과 관계없이 유아의 목적지향적인 활동을 방해하여 만족지연능력의 발달을 손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Silverman & Ippolito, 1995). 이와 유사하게, 또 다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이 낮았다(Silverman & Ragusa, 1990).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의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의 지나친 상호작용의 시도는 유아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내적인 자기조절 기제의 형성을 방해할 수 있음을 가정하게 한다.

부모의 양육행동 요인 가운데 하나인 통제성 역시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다. 어머니의 양육차원 중에서 일관성이 높을수록 유아는 높은 만족지연능력을 나타내었으며, 통제의 유형 중에서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 나누기와 같은 추론을 사용할수록 유아는 높은 만족지연능력을 보였던 반면, 자녀를 다른 방으로 보내거나 혼자 있게 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결과나 신체적 처벌을 사용할수록 유아는 낮은 만족지연능력을 보였다(이미라, 1999).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어, 어머니의 교육지향적인 제한설정 방식은 유아의 만족지연 지속에 일관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어머니의 권력행사적인 제한설정 방식은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의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Houck & LeCuyer-Maus, 2004). 이와 달리 자녀에 대한 행동표준설정, 부적절한 행동통제, 부모에 대한 순종, 훈육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통제성은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김혜순, 2006)도 발견된다. 이처럼,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요인은 온정성과 통제성임을 예측할 수 있으나, 그 결과가 매우 비일관적이다. 게다가,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연구가 매우 부진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부모의 온정성과 통제성이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아동발달의 유전과 환경간 상호작용에 대한 Horowitz(1987)의 모델에 근거하여, 연구자들은 유아의 발달결과에 대한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간 상호작용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다.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과 관련하여서도 이러한 접근이 가능한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 한 가지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간의 관계는 유아의 기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이다. 이는 ‘유기체적 특수성(organismic-specificity)’, 즉 동일한 환경적 요소일지라도 유아는 자신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이를 다르게 받아들여 서로 다른 발달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Wachs & Gandour, 1983)에서 접근할 수 있다. 실제로 몇몇 연구들은 이에 관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나중혜, 2003; Park, Belsky, Putnam, & Crnic, 1997). 예를 들면, 부정적 정서성이 높았던 영아들은 아버지가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보일수록 만족지연능력이 더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 정서성이 낮았던 영아들은 어머니 및 아버지 행동에 관계없이 부모의 행동이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나중혜, 2003). 또한 낮선상황실험에서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비개입적 행동은 훗날 유아의 유용한 만족지연전략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이러한 영향은 유아가 영아기에 부정적인 정서를 보였던 경우에만 해당되었다(Rodriguez et al., 2005). 또 다른 연구에서도, 활동성 수준이 낮은

집단과 달리 활동성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만 어머니가 간섭을 많이 할수록 유아는 부정적 행동을 보다 많이 보였다(Szabo et al, 2008).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간의 관계가 유아의 기질에 따라 달라지듯이, 유아의 기질과 만족지연능력간의 관계 역시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관련성을 가정할 수 있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걸음마기 아동의 행동억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기 아동의 과묵함(reticence)간의 관계에서, 걸음마기의 기질적인 행동억제는 어머니가 유아를 강압적으로 통제하거나 업신여길 경우에만 4세 유아의 과묵함을 예측하였다(Rubin, Burgess, & Hastings, 2002). 또한 2세 때 기질적으로 갈등적이고 공격적인 유아는 4세에 외현화 문제행동을 나타내기 쉬웠으나, 이러한 경향은 어머니가 부정적일 때만 발견되었다. 즉, 2세의 공격성과 4세의 외현화 문제행동간의 관계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Rubin et al., 2003). 그러나,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을 주제로 하여 이러한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발견하기가 어려우므로, 본 연구를 통해 이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각각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간의 관계나 유아의 기질과 만족지연능력간의 관계에서 각각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일종의 중재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각각 만족지연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유아의 기질은 만족지연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만족지연능력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 상호작용 효과는 어떠한가?

은 35-39세가 각각 44.3%와 55.8%로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의 경우, 아버지는 대학교 졸업이 45%, 어머니는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과 대학교 졸업이 각각 32.8%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40.5%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K구 및 Y구와 경기도 Y시에 위치한 3군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131명의 만 4, 5세 유아(평균 : 54.85개월, 표준편차 : 7.87)로서, 유아와 그 어머니들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만 4, 5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이 시기가 만족지연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점(Rodriguez et al., 2005)에 근거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65명(49.6%), 여아가 66명(50.4%)이었으며, 유아의 연령은 4세가 72명(55%), 5세가 59명(45%)이었다. 출생순위는 첫째와 둘째가 각각 36.7%와 39.8%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구조는 핵가족이 76.4%, 대가족이 12.2%이었다. 월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인 25.2%, 300-400만원 미만인 24.5%, 400-500만원 미만인 25.9% 등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1/4분기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수지의 소득 5분위수의 평균에 따르면, 이는 각각 2분위(241만원), 3분위(334만원), 4분위(449만원) 정도에 속한다(통계청, 2008).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만족지연능력 실험과 질문지법에 의해 조사되었다. 만족지연능력 실험은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질문지는 어머니에 의해 응답되었다.

1) 만족지연능력 실험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은 Mischel과 동료들(1972)이 고안한 만족지연 패러다임(delay-of-gratification paradigm)을 Rodriguez와 동료들(2005)이 수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실험의 참여자는 실험을 진행하는 실험자와 실험보조자, 그리고 실험 대상 유아이며, 실험도구는 보상으로 사용될 초콜릿과 접시, 종, 실험자용 의자, 유아용 의자 및 테이블, 초시계, 결과 기록지 등이다. Mischel(1989)은 실험에 사용할 보상은 유아에게 매력적이면서도 연령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개수를 다르게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연구들(Mischel & Mischel, 1983; Mischel & Underwood, 1974)에서 마시말로우(marshmallow)와 프레첼(pretzel)을 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상으로 초콜릿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본 조사에 앞서 실시된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대상 유아에게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실험은 15분에 걸쳐 진행되며, 이 시간 동

안 유아가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만족을 지연할 경우 최고점을 얻게 된다. 실험 종료 시간 전에 종을 울리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종을 치지 않은 채 초콜릿을 먹기 등의 행동이 발생될 경우, 이러한 행동을 보이기까지의 시간을 만족지연시간으로 계산하였다. 만족지연시간은 초 단위로 계산하여 최소시간인 0초는 0점으로, 최대시간인 15분은 900점으로 점수화하였으며, 따라서 그 범위는 0-900점에 이른다. 모든 실험과정은 녹화되었으며, 구체적 실험절차는 뒤의 조사절차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2) 질문지 조사

(1)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Slater와 Power(1987)가 고안한 PDI(Parenting Dimension Inventory)를 권연희(1996)가 번안한 어머니 보고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PDI는 크게 세 영역으로 분류되는데, I 영역은 온정성(6문항), 반응성(4문항), 일관성(3문항) 등 세 가지 요인(총 13문항)으로 구성되며, II 영역과 III 영역은 각각 통제의 양(5문항)과 통제의 유형(5문항)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만족지연능력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김선하, 1997; 김혜순, 2006; Houck & LeCuyer-Maus, 2004; Rha, 1999; Silverman & Ippolito, 1995 등)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I 영역의 온정성 요인과 II 영역의 통제의 양 요인을 각각 온정성과 통제성으로 명명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를 들면, 온정성의 경우 ‘나는 자녀와 함께 애정적이고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자녀가 무엇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해 내가 인정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등이, 통제성의 경우 ‘자녀에게 스스로의 일을 결정하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자유를 주어야 한다’ 혹은 ‘자녀에게는 지금보다 부모의 가르침이 더 많이 중요하다’, ‘자녀를 위해 규칙을 정해 놓음으로써 자녀가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한다’ 혹은 ‘자녀가 잘못을 하고,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 등이 포함된다.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성과 통제의 양이 높음을 의미한다. 온정성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되어있으며, 통제성은 5점 척도로 A와 B의 두 가지 상반되는 양육행동 가운데 자신의 양육행동과 유사한 쪽을 선택하게 하는 형식으로, ‘A에 매우 동의’, ‘A에 동의’, ‘A와 B에 똑같이 동의’, ‘B에 동의’, ‘B에 매우 동의’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s α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는 온정성과 통제성 모두 .79이었다.

(2)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은 Thomas와 Chess(1977)의 RITQ (Revised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를 천희영(1993)이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적응성(10문항), 활동성(9문항), 생리적 규칙성(4문항), 반응성(6문항) 및 정서성(4문항) 요인 등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김혜순, 2006; 정지영·도현심·최미경, 2005)에서 주로 다루어진 적응성, 활동성, 반응성 및 정서성 요인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정서성의 경우 Cronbach's α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가 .27로 매우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적응성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새로운 자극 또는 변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활동성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함을 뜻한다. 그리고 반응성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고 강하게 반응함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되어있는 Likert식 4점 척도로서, Cronbach's α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는 적응성, 활동성 및 반응성 요인 각각 .82, .68 및 .67이었다.

3. 조사절차

본 연구의 조사절차는 다음과 같이 실험조사와 질문지조사로 이루어졌다.

1) 실험조사

실험조사는 예비실험과 본실험으로 이루어졌다. 예비실험은 2008년 8월 16일에 서울시 소재의 한 유아교육기관에 방문하여 2명의 만 3세 유아, 4명의 만 4세 유아, 6명의 만 5세 유아 등 12명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예비실험을 통해 유아 한 명당 17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보상으로 초콜릿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은 각각 한 명의 실험자와 한 명의 실험 보조자로 구성된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실험자와 실험 보조자는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들이었다. 각 팀의 실험절차 및 실험도구는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팀별 실험내용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험절차가 상세히 기록된 지침서를 작성하였으며,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연습하는 훈련기간을 거쳤다.

실험은 유아가 등원하는 시간부터 시작하여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후시간에 실시되었다. 실험실로 사용될 교실에는 유아용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실험자용 의자와 유아용 의자가 서로 마주보게 배치하였으며, 유아용 테이블 위에는 보상으로 사용될 한 개의 초콜릿과 두 개의 초콜릿을 준비하였다. 또한, 실험상황을 정확히 기록하

기 위해 유아의 시야에서 벗어난 위치에 녹화장치를 설치하였다. 공간배치가 마무리 된 후, 실험 보조자가 한 명의 유아를 학급에서 데려와 실험실에 들여보내면서 실험이 시작되었다. 실험자는 실험과정에서 각 유아에게 할당된 시간 및 유아의 만족을 지연한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초시계를 사용하여 시간을 측정하였다. 실험이 끝난 뒤에는 유아의 만족지연 결과에 따른 보상을 주었다. 실험에 참여한 170명의 유아 가운데, 88명의 유아는 실험 도중 중을 울리고 4명의 유아는 자리를 이탈하였으며, 78명의 유아는 15분 동안 기다림으로써 실험을 종료하였다. 본 실험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2) 질문지 조사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어머니용 질문지는 유아편에 배부·회수하였다. 배부된 총 170부의 질문지 가운데 어머니용은 139부가 회수되었으며, 어머니용 질문지 가운데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8부를 제외하여, 총 131명의 자료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조사된 자료는 SPSS program 1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문제의 분석에 앞서 각 변인에서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각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유아의 만족지연능력 실험절차

시점	내용
실험 전	① 실험 보조자는 실험실 밖에서 유아를 한명씩 들여보내고 실험자는 실험실 안에서 유아를 맞이한다. ② 실험자는 유아에게 이름을 묻고 유아용 의자에 앉힌다. ③ 유아가 자리에 앉으면 라포 형성을 위해 “○○야, 이것이 뭐지 아니?”, “그래, 초콜릿이야. ○○는 초콜릿 좋아하니?”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사용하여 상호작용한다.
실험 중	① 라포 형성 후 실험자는 유아에게 “○○야, 지금부터 우리가 게임을 할 거야. ○○는 여기 이 초콜릿 가운데 어떤 것을 더 갖고 싶니?”라고 질문하여 두 개의 보상 중에서 더 선호하는 보상을 선택하게 한다. ② 유아가 선호하는 보상을 선택한 후, 다음과 같이 게임의 규칙을 설명해 준다. “○○는 이것을 더 갖고 싶구나. 그럼 선생님이 게임 규칙을 설명해줄게. 선생님이 이제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건데, ○○가 선생님이 돌아올 때 까지 기다리면 _____(유아가 선택한 보상)를 줄 거야. 만약 ○○가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면 여기 있는 종을 울려서 선생님을 부를 수 있는데, ○○가 그렇게 중간에 종을 울려서 선생님을 부르면 _____(유아가 선택하지 않은 보상)를 줄 거야.” ③ 유아가 게임의 규칙을 잘 이해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선생님이 다녀올 동안 선생님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가 선생님을 끝까지 기다리면 무엇을 준다고 했지?”, “○○가 종을 울려서 선생님을 중간에 부르면 무엇을 준다고 했지?”와 같이 간단히 질문한다. ④ 유아가 게임 규칙을 잘 이해하였음이 확인되면 “선생님이 다녀올 때까지 ○○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닐 수 없고, 이것들을 먹어서도 안돼.”라고 말하여 부가적인 규칙을 설명한다. ⑤ 실험자는 보상으로 주어질 초콜릿 한 개와 초콜릿 두 개를 접시 위에 올려놓고 실험실을 나간다. ⑥ 실험자는 실험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중간에 유아가 종을 울리면 바로 실험실로 들어가고 종을 울리지 않으면 15분 후 실험실로 들어간다.
실험 후	① 실험 시작 후 15분 이전에 유아가 종을 울려서 실험자를 부르면 유아가 선택하지 않은 보상을 주고, 끝까지 기다리면 유아가 선택한 보상을 준다. ② 실험자는 유아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한 뒤, 유아를 밖에 있는 실험보조자에게 데려다 준다.

III 연구결과

1. 예비분석

본 분석에 앞서 예비분석에서는 각 변인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2>). *t*-test 결과, 유아의 적응성($t=.93, p>.05$), 활동성($t=1.12, p>.05$), 반응성($t=-1.71, p>.05$) 및 만족지연능력($t=.11, p>.05$)과 어머니의 온정성($t=.41, p>.05$) 및 통제성($t=1.58, p>.05$) 등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아의 기질 가운데 활동성은 반응성($r=.17, p<.05$)과, 반응성은 어머니의 온정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r=.24, p<.01$), 유아의 활동성($r=-.17, p=.051$)과 어머니의 온정성($r=-.15, p=.089$) 및 통제성($r=-.38, p<.001$)은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 외의 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2. 유아의 기질과 만족지연능력간의 관계

유아의 기질과 만족지연능력간의 관계를 살펴

<표 2> 연구변인들간의 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 (N=131)

변 인	1	2	3	4	5	6
1. 적응성	-					
2. 활동성	.11	-				
3. 반응성	.11	.17*	-			
4. 온정성	.15	-.10	.24**	-		
5. 통제성	-.05	.09	.03	-.15	-	
6. 만족지연능력	.11	-.17 ⁺	-.08	-.15 ⁺	-.38***	-
<i>M(SD)</i>	2.87 (.41)	2.74 (.38)	3.01 (.43)	3.05 (.39)	3.25 (.70)	641.40 (292.63)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 대한 기질의 회귀분석 (N=131)

독립변인	B	β
적응성	99.40	.14
활동성	-136.46	-.18*
반응성	-41.79	-.06
<i>F(df)</i>	2.26*(3, 127)	
<i>R</i> ²	.05	

* $p < .05$

보기 위해, 기질의 세 가지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만족지연능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그 결과, 유아의 활동성만이 만족지연능력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여($\beta = -.18, p < .05$), 활동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은 낮았다. 반면에, 유아의 적응성 및 반응성은 만족지연능력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유아의 기질 요인들의 만족지연능력에 대한 설명력은 5%이었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 양육행동의 두

<표 4>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회귀분석 (N=131)

독립변인	B	β
온정성	-156.16	-.21*
통제성	-173.44	-.41***
<i>F(df)</i>	14.93***(2, 128)	
<i>R</i> ²	.19	

* $p < .05$ *** $p < .001$

가지 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4>), 온정성($\beta = -.21, p < .05$)과 통제성($\beta = -.41, p < .001$)은 각각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가 온정적, 통제적으로 양육할수록,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은 낮았다. 독립변인들이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을 설명하는 정도는 19%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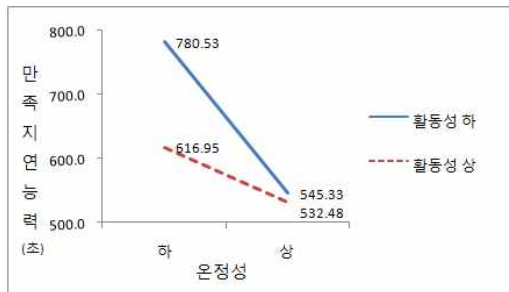
4.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 상호작용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 대한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표 5>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 대한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위계적 회귀분석(β) (N=131)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활동성(A)	-.16*	-2.29**
온정성(B ₁)	-.23**	-2.10**
통제성(B ₂)	-.40***	-.71
(A)×(B ₁)		2.56**
(A)×(B ₂)		.38
<i>F</i> (<i>df</i>)	11.50***(3, 127)	8.87***(5, 125)
<i>R</i> ²	.21	.26
ΔR^2		.05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 대한 유아의 활동성과 어머니의 온정성간 상호작용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앞선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유아의 활동성, 어머니의 온정성 및 통제성을 1단계로 투입하고, 활동성과 온정성간 및 활동성과 통제성간 상호작용 변수를 2단계로 투입하였다(<표 5>). 1단계에서 어머니의 통제성($\beta = -.40, p < .001$), 어머니의 온정성($\beta = -.23, p < .01$), 유아의 활동성($\beta = -.16, p < .05$) 순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2단계에서 두 개의 상호작용 변수들이 추가되었을 때, 유아의 활동성($\beta = -2.29, p < .01$)과 어머니의 온정성($\beta = -2.10, p < .01$)이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유아의 활동성과 어

머니의 온정성간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beta = 2.56, p < .01$)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통제성을 포함하여 활동성과 통제성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독립변인들의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 대한 총 설명력은 26%이었다.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 대한 유아의 활동성과 어머니의 온정성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을 평균 이상 집단과 평균 미만 집단으로 구분하여 총 4개 집단간의 만족지연능력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림 1>에 의하면, 활동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온정성이 높은 유아는 만족지연능력이 낮고 온정성이 낮은 유아는 만족지연능력이 높게 나타났다($t = 3.60, p < .01$). 반면에, 활동성이 높은 집단은 어머니 온정성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낮은 만족지연능력을 보였다($t = 1.11, p > .05$).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온정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활동성 수준이 높은 유아는 활동성 수준이 낮은 유아에 비해 만족지연능력이 낮았으나($t = 2.80, p < .05$), 어머니의 온정성이 높은 집단은 유아의 활동성 수준에 관계없이 만족지연능력이 낮았다($t = 1.15, p > .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각각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비롯하여,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응성, 활동성 및 반응성 등 기질의 세 가지 하위요인 가운데 활동성이 높을수록 유아는 낮은 만족지연능력을 보였다. 이를 뒷받침하

는 선행 연구는 드문 편이나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행동억제(behavioral inhibition)가 만족지연능력 시간을 증가시켰다는 연구결과들(김수혜, 2000; Nisan, 1974; Patterson, & Mischel, 1976)과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즉, 행동억제가 높은 유아들은 새로운 상황에 대해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 민첩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기 쉽고 이로 인해 만족을 지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활동적인 유아는 한 장소에 가만히 앉아 있기 어려운 행동특성상 실험 상황에서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벨을 누름으로써 낮은 만족지연능력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유아의 활동성과 만족지연능력간의 부적 관계를 밝힌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을 설명하는 대표적 기질 특성으로서 잘 알려진 정서성(Raver, 1996; Moore et al., 1976; Mischel et al., 1972) 외에도 또 다른 기질 특성으로서 활동성의 영향력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커 보인다.

둘째, 어머니 양육행동의 두 가지 하위요인인 온정성 및 통제성 요인은 모두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과 부적 관계가 있었다. 먼저, 어머니가 온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행동이 영아의 만족지연능력을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나종혜, 2003)나 어머니의 지나친 상호작용의 시도가 영아의 만족지연능력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Siverman & Ippolito, 1995)와 유사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허용적인 양육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자발적인 만족지연능력을 감소시킨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Maccoby와 Martin (1983)이 제안하였듯이 양육행동의 두 가지 요인인 수용성/반응성(acceptance/responsiveness)과 통

제 혹은 요구(control or demand)간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여기서, 전자와 후자는 각각 온정성과 통제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은 더욱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온정성과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간의 정적(김선하, 1997; 김혜순, 2006) 혹은 부적(나종혜, 2003; Siverman, & Ippolito, 1995) 관계를 보고하는 선행 연구결과들 가운데 후자를 지지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통제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이 낮은 것으로 발견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권력행사적인 제한설정방식이 아동의 만족지연능력을 감소시킨다는 선행 연구결과(Houck & LeCuyer-Maus, 2004)와 일치한다. 즉, Houck과 LeCuyer-Maus(2004)에 의하면, 실험상황에서 권력행사적인 어머니는 아동에게 주위분산을 시키지 않았으며 주위분산을 사용하더라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들의 자녀는 만족지연능력을 보였을지라도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어머니의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어머니와 같이 감독하거나 외적으로 통제하는 성인이 없다면 만족을 지연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즉, 어머니의 통제적인 양육은 아동에게 외적으로만 강화하여 아동의 자발적인 판단력을 감소시키고 내재적인 자기조절 기제의 발달을 저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제적인 어머니의 자녀는 자율성을 발달시키지 못한다는 점(Baumrind, 1966)에서도, 이러한 유아는 어머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스스로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족지연능력과의 관계에서 유아의 활동성과 어머니의 온정성은 상호작용하여, 활동성이 낮은 집단에서만 어머니의 온정성이

낮은 경우 만족지연능력이 높았으며, 활동성이 높은 집단은 어머니의 온정성 수준에 관계없이 만족지연능력이 낮았다. 달리 말하면, 어머니의 온정성이 낮은 집단에서만 활동성이 낮은 유아는 활동성이 높은 유아에 비해 만족지연능력이 높았으며, 온정성이 높은 집단은 유아의 활동성 수준에 관계없이 만족지연능력이 낮았다. 활동적인 유아는 충동적인 성향이 강하여 만족지연능력이 낮다는 측면(Toner, Holstein, & Hetherington, 1977)에서 접근해 보면, 유아의 활동성이 높은 집단은 어머니의 온정성의 정도와 관련 없이 만족지연능력이 낮은 반면, 유아의 활동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온정성에 따라 만족지연능력이 차이를 보여 어머니가 온정적일수록 자녀는 만족을 지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어머니의 온정성은 유아의 자발적인 통제능력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나종혜, 2003; Siverman & Ippolito, 1995)에서 어머니의 온정성이 높은 집단은 유아의 활동성의 정도와 관련 없이 만족지연능력이 낮은 반면, 어머니의 온정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유아의 활동성에 따라 만족지연능력에 차이가 있어 활동적인 유아일수록 만족을 지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유아의 활동성과 어머니의 온정성이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선행 연구결과들(나종혜, 2003; Park et al., 1997; Rodriguez et al, 2005; Rubin et al., 2003)과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유아의 활동성과 만족지연능력간의 관계나, 어머니의 온정성과 만족지연능력간의 관계 모두 유아의 활동성이나 어머니의 온정성 가운데 어느 한 요인의 수준이 낮을 때만 다른 요인의 영향력이 유의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아의 활동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와 어머니의 온정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는 낮은 만족지연능력을 갖

게 됨을 반영하는 것으로,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과의 관계에 있어 유아의 활동성과 어머니의 온정성이라는 특성 그 자체보다는 각 특성의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유아의 적응성, 활동성 및 반응성 중 활동성만이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온정성 및 통제성은 각각 만족지연능력의 관련변인이었으나, 활동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자 온정성만이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간의 개별적 관계 외에도 기질과 양육행동간의 상호적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활동성이 높은 유아는 활동성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어머니의 온정성 외의 또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탐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의 제한점과 더불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가운데 하나는 아동의 기질 측정과 관련된 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는 생후 초기 기질을 측정하는 대신 이미 유아기에 진입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기질을 측정하였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 타고난 특성으로의 기질 특성이라기보다는 영아기와 걸음마기를 거치는 동안 이미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가정되는(Guerin & Gottfried, 1994) 특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영아기에 초기 기질을 측정함으로써 타고난 특성으로서의 기질이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력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유아의 정서성은 만족지연능력과 관련하여 국외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다루어진 기질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신뢰도로 인해 본 분석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신뢰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시도한 국내 연구들(김수혜,

2000; 김혜순, 2006)에서 국외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적응성을 제외하고는 활동성과 반응성 모두 .70 미만의 신뢰도가 산출된 점과 기질 요인들과 다른 연구변인들간의 미약한 관련성을 고려할 때,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기질 척도의 개발이 시급해 보인다. 이 외에도, 기질과 만족지연능력간의 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가 매우 부진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유아의 기질과의 관련성을 심도 있게 고찰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러한 면에서 기질의 보다 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후속연구는 기질의 여러 하위요인들을 포함하여,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 등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둠으로써 아버지의 영향력을 살펴보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이다. 최근 들어 부부 공동양육이 점차 강조되는 상황에서, 후속연구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행동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어머니 및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포함하여 양자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실용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만족지연능력의 관련변인으로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개별적으로 살펴본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양자간의 상호관련성 또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의 발달에 있어 기질과 환경간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국내연구들이 질문지법을 통해 유아의 특성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연구는 유아의 만족지연능력 실험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만족지

연능력은 자기통제력의 행동적인 표현방법으로서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짐(Funder, Block, & Block, 1983)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제로 한 국내연구가 매우 드문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김혜순(2006). 유아의 만족지연능력 및 관련변인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선하(1997). 유아의 만족지연행동과 어머니양육태도. *아동교육*, 6(2), 118-126.
- 김수혜(2000). 3세 아동의 만족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아동의 성,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권연희(1996).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나중혜(2003).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 나타나는 부모행동의 차별적 수용성. *한국영유아보육학*, 28, 151-169.
- 이미라(1999). 아동의 인지양식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욕구충족 지연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지영 · 도현심 · 최미경(2005). 유아의 기질 및 부모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통제력간의 관계. *이동학회지*, 26(6), 305-319.
- 천희영(1993).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통계청(2008). 가계동향조사 : 소득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통계청 웹사이트 <http://www.kosis.kr>에서 2009년 1월 23일 인출.
- Ayduk, O., Mendoza-Denton, R., Mischel, W., Downey, G., Peake, P. K., & Rodriguez, M. (2000). Regulating the interpersonal self : Strategic self-regulation for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76-792.
- Baumrind, D. (1966). Effects of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on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37(4), 887-907.
- Baumeister, R. F., & Heatherton, T. F. (1996). Self-regulation failure : An overview. *Psychological Inquiry*, 7(1), 1-15.
- Carey, W. B., Fox, M., & McDevitt, S. C. (1977). Temperament as a factor in early school adjustment. *Pediatrics*, 60, 621-624.
- Calkins, S. D. (1994). Origins and outcom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Child Development*, 59(2/3), 53-72.
- Chess, S., & Thomas, A. (1989). Issue in the clinical application of temperament. In G. A. Kohnstamm, J. E. Bates, & M. K. Rothbart(Eds.) *Temperament in childhood*, 378-386. Chichester, England : Wiley.
- Funder, D. C., Block, J. H., & Block, J. (1983). Delay of gratification : Some longitudinal personality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6), 1198-1213.
- Guerin, D. W., & Gottfried, A. W. (1994). Developmental stability and change in parent reports of temperament : A ten-year longitudinal investigation from infancy through preadolescence. *Merrill-Palmer Quarterly*, 40(3), 334-355.
- Horowitz, F. D. (1987). *Exploring developmental theories : Toward a structural/behavioral model of development*. Hillsdale, NJ : Erlbaum.
- Houck, G. M., & LeCuyer-Maus, E. A. (2004). Maternal limit setting during toddlerhood, delay of gratification, and behavior problems at age five.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5(1), 28-46.
- Kochanska, G. (1997). Multiple pathways to conscience for children with different temperaments : From toddlerhood to age 5.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228-240.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4th ed., Vol.4). New York : Wiley, 1983.
- Metcalf, J., & Mischel, W. (1999). A hot/cool-system analysis of delay of gratification : Dynamics of willpower. *Psychological Review*, 106(1), 3-19.
- Mischel, W. (1974). Processes in delay of gratification.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 249-292(A-20-6).
- Mischel, W. (1989). Delay of gratification in children. *Science*, 244(4907), 933-938.
- Mischel, W., Ebbsen, E. B., & Zeiss, A. R. (1972). Cognitive and attentional mechanisms in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201-218.
- Mischel, H. N., & Mischel, W. (1983).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knowledge of self-control strategies. *Child Development*, 54(3), 603-619.
- Mischel, W., Shoda, Y., & Peake, P. K. (1988). The nature of adolescent competencies predicted by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4), 687-696.
- Mischel, W., & Underwood, B. (1974). Instrumental ideation in delay of gratification. *Child Development*, 45(4), 1083-1088.
- Moore, B. S., Clyburn, A., & Underwood, B. (1976). The role of affect in delay of gratification. *Child Development*, 47(1), 273-276.
- Nisan, M. (1974). Imposed inhibition and delay of gratification. *Child Development*, 45(4), 1089-1092.
- Olson, S. L. (1989). Assessment of impulsivity in preschoolers : Cross-measure convergences, longitudinal stability, and relevance to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76-183.
- Olson, S. L., Schilling, E. M., & Bates, J. E. (1999). Measurement of impulsivity : Construct coherence,

- longitudinal stability, and relationship with externalizing problems in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2), 151-165.
- Park, S. Y., Belsky, J., Putnam, S., & Crnic, K. (1997).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year inhibition : Exploring stability and lawful discontinuity in a male samp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218-227.
- Patterson, C. J., & Mischel, W. (1976). Effects of temptation-inhibiting and task-facilitating plans on self-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2), 209-217.
- Putnam, S. P., Spritz, B. L., & Stifter, C. A. (2002). Mother-child co-regulation during delay of gratification at 30 months. *Infancy*, 3(2), 209-225.
- Rha, J. H. (1999). Infants' emotionality and parenting as antecedents of delay of gratification in toddlerhood.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Raver, C. C. (1996). Relations between social contingency i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2-year-olds'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2(5), 850-859.
- Raver, C. C., Blackburn, E. K., Bancroft, M., & Torp, N. (1999). Relations between effective emotional self-regulation, attentional control, and low-income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with peers.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0(3), 332-350.
- Rodriguez, M. L., Ayduk, O., Aber, J. L., Mischel, W., Sethi, A., & Shoda, Y. (2005). A contextual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ory competencies : The role of maternal unresponsivity and toddlers' negative affect in stressful situations. *Social Development*, 14(1), 136-157.
- Rubin, K. H., Burgess, K. B., & Hastings, P. D. (2002). Stability and social-behavioral consequences of toddlers' inhibited temperament and parenting behaviors. *Child Development*, 73(2), 483-495.
- Rubin, K. H., Burgess, K. B., Dwyer, K. M., & Hastings, P. D. (2003). Predicting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s from toddler temperament, conflict, and maternal negativ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9(1), 164-176.
- Slater, M. A., & Power, T. G. (1987).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parenting in single-parent. *Advances in Family Intervention, Assessment, and Theory*, 4, 197-228.
- Silverman, I. W., & Ippolito, M. F. (1995). Maternal antecedents of delay ability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6, 569-591.
- Silverman, I. W., & Ragusa, D. M. (1990). Child and maternal correlates of impulse control in 24-month-old children. *Genetic, Social &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6(4), 435-473.
- Szabo, N., Dekovic, M., van Aken, C., Verhoeven, M., van Aken, M., & Junger, M. (2008). The relations among child negative interactive behavior, child temperament, and maternal behavior.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3, 366-377.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 Brunner/Mazel.
- Toner, I. J., Holstein, R. B., & Hetherington, E. M. (1977). Reflection-impulsivity and self-control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8(1), 239-245.
- Wachs, T. D., & Gandour, M. J. (1983). Temperament, environment, and six-month cognitive-intellectual development : A test of the organismic specificity hypothesi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6, 135-152.

2009년 6월 30일 투고, 2009년 9월 9일 수정
2009년 9월 11일 채택